

연중 제19주일

기도서 409면(다해)

제1독서: 지혜 18,6-9

제2독서: 히브 11,1-2, 8-19

복음: 루가 12,32-48

순정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루가 12, 35 - 36).”

강론

소리

우리의 소원

범 영배 신부 / 주현동 전주교회

오늘 제1독서는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지혜서의 저자는 이방인의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문화권에서 제사봉헌의 금지와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증거 했습니다.

최근 공안 정국의 영향으로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의 전국 회장이었던 서경원 국회의원의 방북 사건을 필두로 하여 평양 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한 임수경양외의 무사 귀환을 위해 방북한 문규현 신부님 사건을 계기로 매스컴은 우리 교회를 좌경 세력인양 보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공안 당국이나 매스컴에 의해 어려움을 당한 사례들이 과거에도 여러번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자체적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뭉쳤으며 교회 밖의 외교인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옳은 일을 위해 굽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투신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모험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에 대한 염원을 위해 자신을 바친다는 것은 믿음의 발로입니다. 또한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통일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하는 용기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망 사항으로만 비쳐지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 우리 자신들의 믿음에 의한 희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 교회에게 불리하게만 느껴지는 요즘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을때 통일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 하도록 도와 주시고 믿음과 희망을 굳게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갈라져 욱하기를 그만하고 서로 합해야지요” “여기서 타시켄트(소련의 중앙 아시아 지방, 한인교포가 많이 사는 곳)까지는 비행기로 몇 시간 거리지만 자주 내왕하는데 고국까지는 반시간이나 한시간 거리인데도 갈 수가 없어요.”

모 TV방송의 시베리아 기행 특집에 모습을 드러낸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 할머니들의 망향송은 끝내 눈물로 범벅이 되고 말았다.

해방후 44주년. 반세기가 가까운 세월이건만, 이 땅에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역대 정권의 실질적 통일 정책이다. 7·4 공동선언이나 7·7선언은 결국 국민들을 우롱했을 뿐 통일문제에 아무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채이다.

연해주의 교포들은 말한다. 예전에는 남한 방송을 듣지도 못했으나 ‘페테스트로이카’ 덕분에 요즘에는 자유로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남북한의 소식을 방송을 통해 환히 알고 있다고. 그러나 이땅에선 아직도 북한 방송을 듣는 것마저 금기로 되어있다. 국가보안법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마당에 북의 동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고생들을 하는지, 아무리 궁금한 것이 많다해도 북한 방송을 들어서는 안된다. 만약 들었다가 잘못 발설하는 날이면 최고량을 차고 말 터이다. 북한을 민족공동체로 인정하고 각계인사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다는 선언이 있었음에도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다녀온 국회의원 서모씨와 문복사는 구속되었고 소설가 황모씨는 망명길에 나섰으며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에게는 사전영장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해방 44주년을 맞는 우리모두의 심경은 착잡하기만 하다.

이제 당국은 속임수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선언일랑 그만두고 단 한 가지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펴야 할 때다. 남북교류를 말하기 전에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보안법 등 악법부터 철폐하라.

순정이 산책



— 박병준(필립보) 신부 옥중서간 —

먼저 우리 전주교구 신부님들 교우분들께 미안합니다. 그러나 너무 심려 하지 마세요. 예나 지금이나 저의 마음은 무척 평안합니다. 몸도 건강하구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로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고 있지요. 비록 감옥에 있으나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족과 겨레 앞에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난과 오해가 난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예상했던 바이고 감수하기로 작정한 사항입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 머지 않아 우리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정이, 또 한 사제로서의 순수하고 소박한 심정이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분명히 닥쳐올 것을 예측하면서도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당에서 3년동안이나 교리교사로 봉사하며 살았던 임수경(수산나)양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냘픈 여대생,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왜 꼭 수산나만이 짊어져야 합니까? 분단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왜 꼭 그 가냘픈 여학생에게만 지워야 합니까? 우리는 수산나와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함께 지기로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국가 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인한 또 다른 회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작년 7월 7일 '통일 정책 특별 선언'을 통해 '비극적인 분단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근본이유가 남과 북이 민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 데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 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통일 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며, 이 길이야말로 민족자존의 길이요, 민족 통합의 길이다'라고 선포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 하나의 공동체라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 관계를 지양하고 민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 자주와 통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학자 및 학생들 남북 동포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6조, 7조, 18조)

- 남북적십자 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전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 지원한다.(8조, 18조)

-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7조, 5조)

[7·7 선언문 일부 발췌]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는 또 다른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니다. 43년간 굳게 닫혔던 성문이 열려, 갈라지고 찢겨진 아픔으로 해방 될 날이 멀지 않으리라 생각했지요. 내년 아니, 연말까지는 설악산을 거쳐 금강산에 갈 수 있으리라는 부푼 꿈에 모두들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통일을 말하고, 한 동포 한민족을 얘기 하거나 시도하는 사람은 "국가 보안법"이라는 죄목으로 쇠고랑을 채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문 목사님, 서 경원, 임수경 모조리 빨갱이로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들 모두 빨갱이가 아님을 말입니다. 이는 이 사건을 빌미로 정국을 경색시켜 5공 청산과 광주 사태의 진상조사를 열버무린 채 또다시 5공의 그 무서운 독재로 되돌아 가려는 술수인 것입니다. 이대로 놔 두면 자신들의 독재 정권에 반기를 드는 모든 애국 민주 통일 인사들을 계속 감옥에 처 넣을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다른 민주인사 대신 우리가 감옥살이를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이야 온갖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머지않아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에 앞장 선 우리 교회를 찬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통을 하느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 바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989. 8. 7 청량리 경찰서에서

박 병 준(필립보) 신부

(위의 내용은 지난 8월 7일 청량리 경찰서에서 면회 도중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편집 보완한 것입니다)

페인트공사 일철
특수방수공사
 (지하실, 옥상, 티일벽돌, 도배벽지용페인트)
대한상사
 김익화(오 셉)
 이영희(세시리더)
 전주 중앙시장 정물열
 ☎ 3-4874, (자) 85-8522

전주교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삼희관광(주)**
 해외여행에 관한 상담 및 문인은...
 이정화(안젤라)
 (전신전화국 일)
 ☎ 87-5532

천연 진주상과 14K로 만든 성체 대회 기념성물
 ○ 예수상, 성모상, 교황상, 진주목걸이 3 종류
 ○ 비둘기상, 물고기상, 진주에 큐빅 장식 반지와 목주반지 3 종류
 ※ 공산품이 아니므로 한정된 숫자에서 주문 판매합니다.
 ○ 접수 기간 : 1989. 6. 24~7. 9 까지
 ○ 주문 장소 : 전동성당 천사의 집
 ○ 공급처 :  **대니얼물산(주)**
 서울·마포구 공덕동267-3 제성B/D 103호
 ☎ (CH) 02-718-0121



성서와 함께

52. 구약의 형성(D) : 모세오경의 원전 —
엘로힘 원전과 신명기 원전

E는 하느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시나이 대신 호렘을, 가나안족 대신 아모리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E의 문체 역시 단순하고 강하지만, 생동력에 있어서 J를 따라가지 못한다. 도단이나 세겔과 같은 북쪽 도시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아 E의 작성 장소는 북부 왕국으로 추정되며 작성 시기는 아마도 사마리아가 함락된 기원 전 721년 이전에서 J가 완성된 이후 사이인 800년경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E는 창세기 15장 이후에야 비로소 등장하며 J만큼 잘 보존되어 있지 않다. 추측컨대 E의 창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북부 왕국의 멸망 이후 남쪽 왕국의 편집자가 이 두 원전을 하나로 묶으면서 자기 기호에 맞게 E의 기록을 버리고 J의 기록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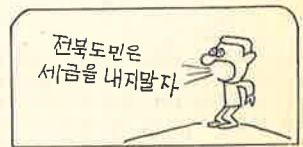
하느님에 대한 E의 신학적 관점은 J보다 더 세련되어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인화의 수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꿈이나 현시를 통하여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 신명기 원전 (D)

D는 위 두 원전과 달리 설화체로 되어 있지 않고 수학적 표현을 삼가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을 단도직입적으로 표명한다. D가 강조하는 신학적 주제는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기에 자신의 특별한 신분에 어울리도록 야훼 하느님께 성실하게 순종하고 참된 예배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D는 특별히 가나안인들과 그들의 정신태를 혐오하고, 야훼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충실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써 역사 안에서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신다고 선포한다. 또한 D 안에 설정된 갖가지 사회적 설정법을 살펴보면 인본주의적인 색채를 엿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한 D의 작성 연대는 열왕기후서 22장으로부터 추측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보면 요시아왕이 성전에서 법전을 발견한 후 이 법전을 토대로 종교 쇄신을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법전은 불경왕으로 통하던 므나세왕의 통치 하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어둡고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 실정법과 경신례법을 베껴 써서 성전안에 은밀히 감추어 두었던 사본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 맞다면 D의 작성 연대를 최소한 요시아왕의 종교 개혁(622) 이전인 기원 전 7세기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요심이 (836) 김병오



금은·보석·시계
천 보 당
손 한성 (비오로)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한성여관 중간)
☎ 84-4138
6-7341

최수원피부관리
문 제 성 피 부 전문
유럽식체중관리
최 수원 (엘리시엔)
보건소 앞 덕수의원 옆
☎ 84-7880

고도의 기술 선명한 색상재현
25분 완성
전북칼리현상소
대포 오 회용 (임부로서오)
전주시 고사동 1가 인금매점 남쪽
(오거리) ☎ 83-5335

교 구 소 식

1. 교구 참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사제 인사 발령을 합니다.

성 명	계 시 던 곳	가 시 는 곳
박중근 신부	E. A. P. I	용 안
정태현 신부	용 안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정양현 신부	군 중	호성동 (신설)
경규봉 신부	군 중	E. A. P. I

인수인계 일시 :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교구청 회의실
부임일자 : 8월 25일

- 본당신설 : 이미 본당 후보지로 예정되었던 호성동 본당을 인후동 본당에서 분리 신설하며 관할구역은 우아동과 호성동 일부로 합니다.
- 사랑의 저금통 - 어린이·청소년 성체대회 준비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랑의 저금통」의 제작과정이 늦어져 8월 13일에 도착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협조 바랍니다.
- 로사리오대회 : 8월 13일(일) 10시 - 17시 장소 : 전주 가톨릭 센터 대회의실 초청강사 : 서요셉 신부(마리아의 사제운동 본부장) 회비 : 1,000원
- 전동 소년 어린이양의 모후 꾸리아 월례회 : 8월 13일 오후 2시 전동성당 교육관

세계 44차 성체대회 기념반지·목걸이 판매
14K 금반지 95,000 14K 금목걸이 90,000 세트 180,000
은반지 16,000 은목걸이 15,000 세트 30,000
제작 주문판매
주문처 : 영등동 전주교회 ☎ 52-2240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꽃집
이 마리아 범 디 또
☎ 84-2628

조립식건축의 완성
京一建業
김 해선 (레미지오)
전주시 서노송동 홍국생명 옆
☎ 73-1611. 75-016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인 석
수녀원 82-9662

- ※ “축” 성모승천 대축일 : 미사-5시30분, 9시, 10시30분, 오후3시
오후5시 30분(공소미사), 저녁8시
1. 세례식 : 14일(월)저녁8시 대부분 동반바랍니다. 세례자축하식 : 15일 공
식미사 후 장소 : 지하실
 2. 꾸리아월례회 : 오늘 오후2시
 3. 모 임 : 성령기도회-17일(목)8시, 형제회-18일(금)2시, M·E목련
팀-18일(금)8시.
 4. 전주M·E 제26차 감습회 : 18일(금)~20일(일). 강덕규, 정태민 부부
양인석, 김정선 부부 축하합니다.
 5. 교리경시대회 : 초등부-20일(일)2시~3시 중·고등부 : 20일미사후
 6. 탈상미사 : 14일(월)저녁10시 박인식(아오스님)의 모친
17일(목)오전11시 다리리 공소 김봉배(루시아)장부
- 지난주 봉헌금 : 601,590원 □ 교무금 : 320,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 일 균
수녀원 86-3454

1. 울뜨레아 : 오늘 공식미사후
 2. 꾸리아 : 오늘 오후2시
 3. 청년회 : 오늘 저녁 미사후
 4. 첫영성체자 고백성사 : 14일 오후 5
~6시
 5. 첫영성체자 영세식 : 14일 오후7시
 6. 첫영성체 : 15일 공식미사
 7.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주일과 같음.
 8. 부녀회 : 17일 오전10시
 9. 구역분과회 : 19일 오전10시
 10. 성우회 : 20일 공식미사후
 11. 요셉회 : 20일 저녁미사후
- 금주전례 : 해설-이상인 ① 오장수 ② 정강선 봉헌-오장수씨 부부
15일전례 : 해설-황만금 ① 신일균 ② 윤귀자 봉헌-신일균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윤귀자 ① 박상기 ② 장영자 봉헌-박상기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452,860원 □ 교무금 : 656,200원

*사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 순 천

- ※ 축 첫영성체 : 15일, 공식미사중, 어린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1. 성모승천 대축일 및 본당의 날 행사 : 15일(화), 10 : 30분미사 한대
만 있습니다. 점심은 구역별로 준비하시고, 식사후 행사.
 2. 구역미사 : 마치, 17일(목), 저녁
 3. 성가정회, 청년회 : 차주 공식미사후
 4. 성체조배 : 시간표 확인 하세요.
 5. 전례 : 금주해설-이춘봉 봉헌-조재철, 이완봉씨 부부
차주해설-이승복 봉헌-강순용, 박성열씨 부부
성모승천 대축일 해설-김경재 봉헌-문길석, 한동욱씨 부부
 6. 목주기도 : 봉헌-5,475단 누계-39,915단
 7. 회장단 단합대회 : 공식미사후 어두리 다리
- 지난주 봉헌금 : 234,870원 □ 교무금 : 169,00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환 용
수녀원 84-2276

- ※ 오늘은 연중 제19주입니다.
1. 회 의 : ① 성심회-오늘 오후 2시
② 프란치스코 3회-오늘 오후 2시
 2. 모 임 : 전례부-오늘저녁 미사후
 3. 알 림 : ① 봉성체-16일(수)
② 성체대회 참석하실분 사무실에 신청바람(선착순)
③ 8.15(성모승천축일) 미사는 주일미사 시간과 같음
축/ 꾸리실료 수료자탄생-황태오(현규)전이사악(승현)형
제님
- 지난주 봉헌금 : 506,220원 □ 교무금 : 94,000원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 점 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오 직 한

1. 신축현금 바랍니다.
 2. 교무금 미납하신분 납부바랍니다.
 3. 수재민 돕기 2차현금 있습니다.(미사후)
 4. 알림 : 8월 15일 아침미사, 저녁미사 없습니다.
 5. 울뜨레아 모임 : 다음주 공식미사후
 6. 청소년사 : 8월 14일~19일 주공3단지 서편
- 지난주 봉헌금 : 257,400원 □ 교무금 : 391,000원
□ 신축현금 : 14,775,000원 (입금 : 11,645,000원)

*전동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 수 현
유치원 84-8347 레지아 83-5085 보좌신부 김 선 태
사제관 82-6232, 82-7245 사목회장 안 득 수

- ※ 8월 15일(화)은 성모승천대축일 입니다.(미사는 주일 미사시간과
같음)
1. 사목회 : 오늘공식미사후에 있음 ※ 오늘2차현금이 있음(수재민
돕기)
 2. 레지오단원대청소 : 8월 14일 오후 4시 전단원과 성전봉사자는 참
여 바람.
 3. 파티마의 성모(기적) 영화상영 : 8월 15일저녁 미사후-전신자 관람
 4. 세계성체대회참가자 접수 : 버스 계약관계로 8월 15일까지 마감
 5. 레지아-20일오후 2시
 6. 구역장 반장회의-14일(월) 오전 11시
 7. 8.15통일염원 9월기도중 : 7일~15일
- ※ 금주보수비현금액 : 209,000원 ※ 현재모금총액 : 51,636,890원
※ 금주신입액 : 70,000원 ※ 현재신입총액 : 181,037,15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 병 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 광 환
수녀원 87-0229

1. 제대회 : 오늘 공식미사후
 2. 성모승천 대축일미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성모회·청년회·다음주 공식미사후, 저녁미사후
 4. 신축현금 및 교무금을 봉헌하여, 본당의 어려운 살림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5. 미사시간 안내 : 일요일 새벽미사를 없애고, 토요일 저녁미사를 특
전미사로 결정했습니다(본당신부님이 오실때까지만.....)
 6. 금주전례 : 해설-정순태 복사-려 춘, 김덕동 봉헌-이충원 부부
차주전례 : 해설-함문권 복사-김화영, 저동호 봉헌-박해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14,470원 □ 교무금 : 234,000원
자선현금 : 50,000원
2차 현금 : 65,670원 신축금신입총액 : 149,339,836원
올해기금신입총액 : 4,305,000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 종 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 대 현
수녀원 84-4804

1. 축 영세(성모승천반) ※ 하느님 새 영세자들에게 축복주소서.
영세식 : 오늘 오후 6 : 30분
2. 경축 성모승천 대축일-대축일을 맞이하여 효자가족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대축일 미사 : ① 9 : 30 ② 11시 ③
오후7시 3. 금주 수요일미사-새벽6시
4. 본당신부 마리아블리 전국 사제연수회 : 16-25일
※ 연수회 동안 권안포니오 신부님께서 본당미사 집전
5. 지속적인 성체조배(365일) 신청자(500명)-계속 신청바람
※ 세계 성체대회 참가신청-참가비 7,000원(사무실)
6. 새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① 일-09 : 30 ② 수(오후)-7 : 30
③ 금-10 : 40 ※ 1신자 1예비자 인도합니다.
7. 감 사 : 박시몬회장님-지속적인 성체조배교육(6일-9일까지)
□ 교무금 : 605,000원 초등부 : 10,250원 불우이웃돕기 : 10,000원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창 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용 무
수녀원 87-0711

1. 울뜨레아,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영세식 : 14일 오후 6 : 00
 3. 성모승천 대축일 : 주일 미사 시간과 같음
 4. 자모회 : 18일(금) 어머니 미사후
 5. 두현리 공소미사 : 18일(금) 오후 8 : 30
 6. 8.15 범민족 축전대회에 참가합니다. 장소 : 전북대학교
 7. 차주모임 : 사목회, 꾸리아 월례회
- 금주전례 : 해설-한병갑 독서-① 남상용 ② 최윤희
기도-김광택 문옥진
차주전례 : 해설-김용무 독서-① 김영근 ② 김현자
기도-권병채 이정희
- 지난주 봉헌금 : 449,430원 □ 교무금 : 213,000원